

Awana Column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베트남을 다녀왔다. 선교를 위한 정보 수집과 한인교회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기대치 않았던 많은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베트남으로의 여행을 위해 공항에서 마지막 수속을 하는 동안 내 마음에는 기대가 생겼다. 이코노미 좌석을 구입했지만 혹시 비즈니스 좌석으로 승급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잊은 여행의 결과로 나는 항공사의 우수회원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었다. 항공사는 종종 나의 자리를 무료로 비즈니스 석으로 승급시켜주었다. 그날도 그렇게 기대감 가득한 마음으로 항공사 직원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직원은 이코노미 좌석을 배정해 주었다. 마음이 조금 상했다. 그러나 기대는 접지 않았다. 종종 게이트 앞에서 좌석표를 비즈니스로 교환해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지막 게이트 앞에서 나는 기대감으로 나의 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나의 비행기표는 교환되지 않았고 그대로 이코노미 좌석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나에게 돌아왔다. 좌석에 앉아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불쾌해하는 나를 발견했다. 동시에 나의 마음에 질문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너 비행기표 이코노미 구입했지?"

"네가 구입한 표를 네게 주었는데 직원들이 무슨 잘못을 한거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직원들은 전혀 잘못이 없었다. 오히려 선물로 주었던 비즈니스석을 계속 기대하고 또 마치 그것이 나에게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나의 도둑놈 같은 심보가 문제였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죄 씻음과 영생을 얻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선물은 더 이상 감격적이지 않은 나를 발견한다. 찬양이 나의 입가에서 흘러나왔다.

어와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신앙인을 양육하기 원한다. 이일에 기도와 협력을 요청한다.

Awana Korea
대표 이종국 목사

